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 916-368-92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신명기 6:2-6 제2독서 히브리서 7:23-28 복음 마르코 12:28-34

◎말씀 < 공짜로는 다다를 수 없는 하느님 나라 >

담벼락 너머 감나무가 가을과 함께 노랗게 몸치장을 하며 익어갑니다. 바야흐로 땅은 진수성찬(珍羞盛饌)의 시절을 맞습니다. 놀랍습니다. 온 우주가 힘들여 키우는 오곡백과들! 무위당 장일순 선생은 쌀 한 톨에도 우주가 들어있고, 전우익 선생은 수풀 속에서 익어가는 누런 호박 하나도 결코 공짜로 굴러오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눈썰미 좋은 시인은 “저게 저절로 붉어질리는 없다 / 저 안에 태풍 몇 개 / 저 안에 천둥 몇 개 / 저 안에 벼락 몇 개 /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가서 /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장석주 ‘대추 한 알’)며 대추 한 알 조차도 허투루 오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모세는 “하느님 백성은 들어라. 기억하라! 오직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래야 살 것” 이라고 호소합니다.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약속의 땅에는 천지간에 널린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하느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다다를 수 있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제1독서 신명 6,2-6) 예수님은 법을 팔아 권력을 사고 땡땡거리며 살던 율법 학자들을 이렇게 견책합니다. “한 분이신 주님을 목숨과 정신, 힘을 다해 사랑하되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것이 어떤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다.” (복음 마르 12,28-34)

오직 하느님을 사랑하라던 모세와 히브리 사람들도 세월과 함께 떠나갔습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어떤 희생 제물이나 번제물 보다 낫다고 대답했던 슬기로운 율법학자도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랑이 부족하고 노력 없이 댓가를 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법, 편법, 탈법의 카르텔이 정의와 공정의 가면을 쓰고 노력 없이 돈과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흔해서 놀랍지도 않습니다. 수고, 희생, 연민, 환대, 사랑의 결실을 말하는 것은 강 건너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며칠 전 스님 한 분이 잘 익은 알밤과 함께 < 관, 도일체고위(觀, 度一切苦危) > 다섯 글자를 적어 이렇게 멋진 해설을 덧붙여 보내 주셨습니다. “모든 종교의 기본입장은 고통의 세상을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관(觀)은 예수님을 만나 뵈는 것, 예수님의 사랑과 일치되는 것이고, 불교적으로선 선악 시비 분별을 완전히 극복한 경지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예수님을 만나 뵈는 길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불청객과 더불어 산 시간이 2년이 되어갑니다. 몸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다쳐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시절 안녕하시기를, 오직 하느님과 이웃을 힘내어 사랑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일 자	전 령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1월2일(화)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저녁7시30분	주일헌금	\$ 872.00
			교무금	\$ 1,540.00
11월3일(수)	연중 제31주간 수요일	오전7시30분	성물방	\$ 20.00
			감사헌금	\$ 200.00
11월4일(목)	성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 기념일	저녁7시30분	자선비	\$ 25.00
			광고비	\$ 200.00
11월5일(금)	연중 제31주간 금요일	저녁7시30분	성소후원 등	\$ 60.00
			교구2차헌금	\$ 432.00
11월6일(토)	연중 제31주간 토요일	저녁7시30분	합 계	\$ 3,349.00
11월7일(일)	연중 제32주일	오전9시(학생) 오전11시(교중)	미사참례자	학생/아동: 14명 성인: 108명
교무금 봉헌자	김채홍.이의웅(11-12월)서상훈(7-12월)김옥동(7-9월)정영규(10월)			

◎신앙생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 욥시21:5)

가톨릭교리상식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그 사람에게 죄를 용서받지 못했는데도,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고백하면 이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건가요?

먼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느님은 털끝만큼의 참회라도 그것이 진실하기만 한다면 어떤 종류의 죄라도 다 잊으시며, 참회하기만 한다면 심지어 악마들의 죄도 모두 용서하실 정도로 참회를 높이 평가하십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우리는 죄로 인해 일그러진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상처입은 교회 공동체와도 화해하게 됩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422항 참조). 이렇듯 치유의 성사인 고해성사는 죄의 고리를 끊고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인 사랑의 계명, 즉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마태 5,23-24)

조건 없이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은 이는 당연히 예수님의 이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행위인데 하느님께만 용서를 청하고, 이웃의 상처는 모른척하는 행위는 위선입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유아세례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종종 어떤 분들은 ‘아이가 나중에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 고 하시며, ‘종교의 자유’ 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주제를 교육으로 치환하여 놓고 보면 답은 좀 더 분명해집니다. 그 어떤 부모님도 아이가 교육을 받을지 말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방관에 가까워질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를 신앙 없이 키우는 것을 ‘자유’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신앙은 중요하지 않다’ 는

부모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론 개인적인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그 가능성은 현실로 개화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홀로 만들어나가는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과 함께하면서 시작되고 자라나게 됩니다. 유아 세례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성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유아 세례 예식서도 이러한 의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예식서는 어린이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현행 예식서(2018년 발행)는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이 같은 질문은 유아 세례가 어린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수행해야 하는 부모의 몫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맥락에 따라, 이번에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교회법 조항 그대로 분명하게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모는 아기들이 태어난 후 몇 주 내에 세례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교회법 867조 1항)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김정필 .라파엘 / 윤태욱 .안나 / 원정은 .카타리나 백정심 .막달레나 / 기은희 .마리아 / 김나미 .로사 김옥륜 .세실리아 / 추소연 .세실리아 / 영안드레아 김숙자 .수산나 / 김초지 .마리아 / 이규청 .제노비아 엄모니카 / 배미성 .오틸리아 / 박모란 .글라라 고공자 .벨라뎃타 / 신용경 .그레고리오 / 이상일 .마리아 남필레 .마리아 / 김화진 .요안나 / 김영미 .마리아
-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 (미사신청 ; 박울리아 .916-990-6531 / 박프란치스코 .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여길선요안나 영혼	김근수요한가족	생	조유원요셉 영육건강	조윤희밀지다
연	전기레베레나 영혼	조영진안드레아	생	조유원요셉 영육건강	이선자안나
연	오영애바울라 영혼	오토마스자녀들	생	김정필라파엘 빠른 회복	김수미제넷
연	이돈수알폰소 영혼	이주엽발렌티노	생	감사미사	김수산나
연	서정선엘리사벳 영혼	안윤석	생	김정필라파엘, 고공자벨라뎃타 건강	손엘리사벳
연	명광식바로로 영혼	이경임루시아	생	이정석요한 영육건강	김미경
생	제니홍보나, 조던강 빠른 회복	류재순마리안나	생	김미경마리아막달레나 영육간 건강	마리아막달레나

가
작
주
지

◎ 형제의 피 ◎

당신이 우리 몸을 빛과 향기로 관통해
세상의 그 충격으로 부서진 마음을 고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하신 그 순간, 당신 안에서
우리가 같이 손잡고 형제의 피를 나눕니다.

마종기 노렌조 시인 .의사

◎공동체 소식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묵시21:5)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1인 1신심단체, +1봉사단체 가입하기>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1. 본당 사목회의 개최

일시:31일(일) 교중미사후. 구사제관 사목회 회칙개정에 관한 토의가 있습니다. 많은 사목위원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연례회 모임

일시:31일(일)교중미사후
장소:Round Table (9138 Kifer Blvd)

3. 위령의 날, 묘지미사

일시:11월6일(토) 오전11시30분.
성당에서 오전11시에 출발합니다.
장소:St.Mary's Cemetery (6700 21st Ave)
한국세션(야외미사) / 우천시는 Slakey Chapel
미사 시작 전에 연도가 있습니다.

합동위령미사신청:전례부장 또는 사무실

4. 섬머타임 종료(Daylight Saving-ends)

일시:11월6일(토) 밤10시를 밤9시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5. 성모신심미사 및 성시간

일시:11월13일(토) 오전10시30분.성당
(일반 신자분들도 미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사후 성당에서 요셉회.안나회가 있으며
점심나눔은 영동설령당에서 합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 리노 공소 미사

일 시:11월14일(일)성당에서 오후2시 출발
참여단체:하상바오로,전교부
공소미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7. 감사합니다

감사헌금:\$200 (민명규.요셉)
광 고 비:\$200 (서은미부동산)

<<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학생미사 (매주일 오전9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학생미사때 좌석을 구분하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학생.학부모(독서대쪽)/일반성인(미사해설대쪽)

◎ 병자성사 및 봉성체 신청

병자성사가 필요한 위급한 환자나 봉성체를 원하시는 환자 가정에서는 신부님께 개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성당 내에서의 소규모 단체모임 허용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본당 제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단체모임(10명 내외)에 한해서 본당 사용을 허락합니다.
본당 신부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에서 발행한 Check는 빠른 시일 안에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 된 Check를 입금하지 않고 8개월이 지나면 찾을 수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은 Check는 본당 자선비로 봉헌 처리하려고 합니다.

● 코비드19 관련, 본당 방역 지침 (요약)

- ①성가책과 기도책은 모두 개인이 지참.사용 하시기 바라며, 미사후에는 개인소지품은 맥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②악수/포옹 등의 신체적 접촉은 삼가하시고, 코비드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세정제 사용을 생활화 합니다.
- ③미사 참석하는 모든 신자들의 성가제창 및 기도문 봉독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합니다
- ④그 외 사항은 교구지침을 따릅니다.

화답송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전례봉사	연중 제31주일(10월31일)	연중 제32주일(11월7일)	연중 제33주일(11월14일)	그리스도왕대축일(11월21일)
미사해설	최금주.요안나	김은영.폴리나	정미정.루시아	이순자.요안나
복 사	최준우.루까	김규철.레오	송돈희.요셉	장현철.엘리아
헌금위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광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묵시 21:5

주보제작: 박봉준. 프란치스코살레시오(909-573-5322) E-Mail: 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 (토마스)
916-353-1112
samuraisushisac.com

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 (바오로)
916-361-2020 (Bradshaw)
916-361-0433 (Elk Grove)

1.2.3 Auto Body 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 (호영베드로)
916-366-0123

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



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 (올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 (스테파노)
김옥기 (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

서은미 부동산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 (안나) 916-600-1936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 #P)
최병엽 (바오로)
916-363-2345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 (클라라)
916-342-7072

메리서 부동산·용자·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 (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Print N Signs

Signs/Banners/T-Shirt
Wrap/Windows Tint
Soheil Samiee
916-844-0280/914-3794
PrintsNsigns16@gmail.com
9336 La Riviera Dr. #B

장 의사 W.F.Gormley & 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Aeyon Lee RPh
(이애연 플로렌시아)
개인면담 (사전예약필요)
교중미사후 친교실 (격주)
916-276-1834
aeyon7511@gmail.com

성당
FM주파수
107.9
(야외미사)

성당제출용
CHECK 발행할 때
Payee to:
St.J.H.C

교무금 봉헌 은행계좌 안내

입금은행: Wells Fargo
예금주: Pastor of St Jeong-Hae Elizabeth
계좌번호(Account#): 360 184 1897
교무금 등 각종 봉헌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모든 신자의 의무사항입니다.